

1 본회소식



And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 가리니... 기쁨과 슬픔도 다 순간이니, 이 또한 지나가리니..."
- 솔로몬 -

동문 여러분!

괴질과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길 없는 가운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지러워도 어둠의 터널에는 필경 끝이 있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신축년 새해에 동문회도 위축되지 않고,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동창이 밝으면 일하는 소처럼,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수비남산 壽比南山
복여동해 福如東海

새해에 동문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이 남산처럼 우뚝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과 행운이 동해처럼 넘쳐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회장 권영길 드림.



서울미술나눔 자선전시

본회(회장 권영길)는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SAP)과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서울미술 나눔 자선전시'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식은 생략됐으나 개막일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이희범 회장 및 이승무 사무총장, 여명학교 이흥훈 교장 및 조명숙 교감, 사단법인 여명 오명도 총무이사 및 이봉형 사무국장, 모교 차동하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 권영길(69응미) 회장은 "이번 전시는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알리고 후원하는 취지로

기획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개최가 미뤄져왔으나,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돕고 후원하는 일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전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한 이번 전시에는 뜻을 함께하는 동문 작가들의 100여 작품과 아울러 여명학교 학생들이 공동제작한 벽화 '남산의 꿈(위사진)'이 함께



전시됐다. 지난해 8월 본회와 SAP은 미술교육지원의 일환으로 여명학교에서 벽화제작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선우항(91동양) 동문 등 모교 출신 강사들의 지도로 17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학교생활, 일상생활, 자신의 현재 혹은 미래의 모습이라는 3가지 주제 중 하나를 골라 표현한 드로잉들을 모아 하나의 대형 벽화작품(2x4m)을 제작했다. 한편 서울 남산동에 위치한 여명학교는 2004년 개교하여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이다. 2020년 6월 기준 총 33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중고등학교 과정 8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최근 학교 이전 논란으로 신입생 지원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미술인 : 통합과 소통을 향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올해로 설립 74주년을 맞으며, 배출한 동문이 6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미술대학은 한국 미술교육의 효시이자, 해방 이후 세계와 우리나라의 지도적 미술가들을 배출해 왔고, 우리 교육계에 미술교육의 규범이 되어 왔습니다.

동창회를 섬기고 있는 저는 이와 같은 명예로운 전통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업적과 성취가 앞서 나아가신 선배님들의 예술과 학문의 연찬,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의 연구와 창작의 열정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와 사회가 주는 여러 형태의 압력이 있지만, 모교는 어려움 속에서 개혁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등, 세계 속의 초일류대학이 되기 위한 다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미술대학 동창회도 국내외로 흩어진 6500 동문들을 찾아내어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동문들의 작품 아카이브 제작사업을 기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구축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동문전을 기획하고, 지난해는 동문들의 미술나눔 옥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 동문으로 진입을 앞둔 재학생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탈북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여명학교를 지원하는 사회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껏 늘어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희는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을 창설했습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한 대학의 발전을 가능하고 평가하는 항목은 다양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이 졸업 동문의 사회활동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한 연구와 눈부신 작품활동으로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동문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발전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젊고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년기에 생각의 잔뼈를 굳게 해준 모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 모두가 그

터에서 성장한 동문이라는 사실 또한 바꿀 수 없는 인연입니다. 그런 탓인지 동문들의 작품을 보면, 서울대 미대의 아카데미즘 전통이 배어 있고, 자존심과 긍지가 보입니다.

The Show Must Go On!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예술계 전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현재 우리 미대동창회는 그동안 구축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언택트 전시인 '아트온더라인(ART ON THE LINE)'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대 동문들의 역량으로 개발한 전시사이트에 400여명의 동문들이 12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기에 동문들과 미술애호가들의 관람이 뜨겁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대미대동창회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온라인 소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파악된 3500명에게 매월 뉴스레터(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가 전송되고 있고, 카페, 페이스북, 밴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미디어, 그리고 동창회 단체카톡방, 이메일 등에는 매일 전국과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전시 및 출판 소식과 애경사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동창회는 현재 미대동창회 홈페이지(www.snuart.or.kr)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이 웹사이트는 6500 동문의 버추얼 아카이브가 되어서 대외, 대내적인 열린 소통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최초로 동문들이 대거 참여한 <서울대 미술인> 발간은 코비드19로 인한 언택트 격리의 시대에, 지상에서 컨택트 통합을 이루어낸 자랑스런 사건입니다. 저희들의 노력을 치하해 주신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과 이희범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늘 저희 동문회를 성원해 주시는 미술대학 문주 학장님, 그리고 비평의 글을 써주신 서울대미술관 심상용 관장님께 감사드리며, 1000명에 달하는 동문이 참여하는 대역사를 가능케 한 미대동창회 임원과 헌신적인 후배 일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회장

권영걸



'서울대 미술인' 발간

본회는 지난해 12월1일 동문작품집 '서울대 미술인 1946-2020'을 출간했다. 동문들의 인명록에 가까운 작품집에는 1946 입학년도부터 2020 졸업년도(석박사 포함)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수학 후

활동하고 있는 천명에 달하는 작가들의 작품이미지와 약력을 수록했으며, 동문작품집으로는 역대 최대 분량이다. 특히 이번 동문작품집은 서울대 미술인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회화, 조각, 디자인, 건축 등 모든 시각예술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작품이미지 또한 신작보다는 대표작으로, 학번순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수록했다. 문헌참고 및 웹검색 등 6개월에 걸친 방대한 자료조사와 편집, 디자인 작업 끝에 완성된 본 동문작품집은 코로나19로 인해 작품집 발간행사를 생략하고 지난해 12월15일부터 배포를 시작했다.

동문작품집배부

■ 장소: 본회 선릉오피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11, 아남타워1323(선릉역5번출구)

■ 시간: 화,수,목요일(오전10시-오후5시)

직접수령이 어려우실 경우 택배로 착불배송해 드립니다. 배송을 원하시면 주소를 문자(010-9469-806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정서를 부여하고 예술이 숨 쉬는 사회를 향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들의 노력 그리고 헌신의 역사가 녹아있는 <서울대 미술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0년부터 2020년 최근 졸업한 동문까지 미술대학 동문들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이번 작품집 발간은 그 자체로 미술대학과 한국미술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1000명에 이르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들이 참여하는 이번 발간 사업은 동문 상호간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세대 간 소통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모교에 대한 격려와 사랑을 한데 모으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야기한 거대한 혼란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우리에게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예술은 세계를 폭넓게 포용하고, 우리 삶의 위안이 되어주는 삶의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개교 이래 서울대학교는 많은 난관을 겪고 시련을 극복해 왔지만 이번

처럼 교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대학 생활 자체가 타격을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고 미리 준비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곳곳이 삶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문들의 발걸음이 자랑스럽고 큰 위안이 됩니다. 특히, 권영걸 미대동창회장님은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동문작가들을 위하한 미술인 창작활동 지원, 미술인 권익옹호 및 정보교류, 미술인의 예술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대중 및 미술애호가를 위한 교육사업 등에 헌신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으로 동문들과 함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시는 모습에 든든합니다.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미술계의 중심으로 활약하시는 미술대학 동문들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고하신 원로동문들을 포함 서울대 미대 출신 동문작가들의 활약은 세계적으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서울대인으로서 긍지를 드높이고 있는 많은 미대동문들의 행보에 큰 박수를 보내며 동문들께서 걸어온 창작의 역사와 창조적 감성이 전하는 치유와 희망의 힘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이자 밝은 등불이 되어 깊은 울림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오 세 정



‘서울대 미술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 1000여명이 합심하여 작품집 ‘서울대 미술인’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교 동문들은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서울미대 동문들은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대미술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방울 작가로 이름 높은 김창열 동문, 단색화의 대가 정상화 동문, 수묵추상의 거장 서세옥 동문 등 원로 대가들부터, 설치미술로 활동영역을 넓혀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는 서도호, 양혜규 동문, 작고하신 동문 작가부터 동시대 미술의 아이콘으로 성장한 신진 동문 작가까지 미대 동문들의 계보와 활약상을 살피는 것만으로 우리 미술의 변화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작품집 ‘서울대 미술인’의 발간은 43만 서울대인의 자랑이자, 우리 미술계의 경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협으로 현장에서 전시회를 열기가 어려워진 요즘 미술시장의 침체는 물론 작가들의 창작활동 또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교 미대 동문들은

온라인 전시회 개최에 도전, 지난 10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동문전 ‘아트온더라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년 동안 온라인 동문전 개최와 동문 작품집 발간을 위해 애써 오신 권영걸 회장을 비롯한 미대동창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위기 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는 예술혼과 더 체계적으로 꾸려지는 동창회 활동을 지켜보며, 가슴 뭉클했습니다.

총동창회 또한 지난 11월 2일 온라인으로 홈커밍데이 행사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대규모 모임 대신 50명 이내의 조찬포럼, 등산대회, 국토문화기행 등 다양한 소모임을 개최해 동문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동질감을 드높였습니다.

미대동창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총동창회가 매년 제작, 배포하는 탁상달력에 미대 동문들의 작품을 엄선해 실고 있습니다. 훌륭한 작품을 선정해 주신 권영걸 회장님과 문주 미대학장님, 심상용 미술관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엔 미대동창회와 총동창회가 두 손 맞잡고 동문 대상 미술 실기 및 이론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동문 및 동문 작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미술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6500여 미대 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 희 범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대학은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아래 사회와 미술계의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술대학과 함께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시작한 학생회 지원사업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비대면 수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만남과 교류가 단절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작품으로 자유롭게 관객과 소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술계 역시 위기와 고난의 시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작업과 전시방법에 대해 고민하여 전통적인 미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택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와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미술대학은 미술·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 동창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시 중에 있는 온라인 동문전에 이어 이번에 발간하는 <서울대 미술인>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에게는 자각제이며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들에게는 작업의 지침서로서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고한 동문부터 현재 활발하게 작업을 지속해나가는 동문까지 1000명에 달하는 작품과 자료를 모은 <서울대 미술인> 발간은 한국 미술디자인계에서 훌륭한 작가들을 배출해낸 미술대학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들은 무한한 창조의 정신과 예술적 탐구 정신으로 우리나라 미술·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세계 속의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는데 건인자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미술인>을 완성시키기까지 큰 구심점이 되어주신 권영걸 동창회장님과 오랜 시간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문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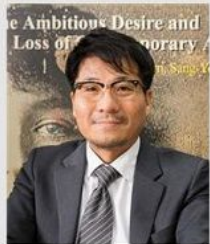
온라인동문전 ART ON-THE-LINE 2020

본회는 지난해 10월20~11월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온라인동문전 'ART ON-THE-LINE 2020'을 개최했다. 본회가 자체개발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열린 이번 동문전에는 약 400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작가별로 3점의 작품 및 약력을 소개했다. 전시종료 후에는 '서울대미대 동창회 작품아카이브'로 전환됐으며, 기존 온라인전 참가회원 외에 작고한 회원들의 작품과 약력을 추가로 게시했다. 아카이브는 본회 홈페이지(www.snuart.or.kr)에서 항상 볼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아래글=온라인동문전 개최 당시 서울대미술관장 심상용 동문의 기고문)

'Art on the Line' 전의 부름

다시 흐르는 예술의 터가 되자!

심상용(미술사학 박사/서울대학교 미술관장)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온라인 동문전이 <Art on the line>의 제목으로 열리고 있다. 약 400명의 동문 작가들이 참가하고, 작가별로 3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니,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한 번에 모든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듯싶다. 전시 관람은 모바일이나 PC 등 디지털 단말기를 통한

'on-line' 접속으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전시는 'www.snuart.or.kr'로 표기되는 디지털 장소에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 이미지 형태의 작품들의 나열로 구성된다.

작품들은 각 작가의 이름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ㄱ'을 클릭하면, 처음으로 1952년생 강경구(73회화)의 대작(259x388cm) <흐르지 않는 강>과 마주하게 된다. 관람 동선은 이어 'ㄴ'과 'ㄷ'을 클릭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낯익은 이름들, 기억들이 스쳐지나간다. 이 짧지 않은 관람의 마지막은 1947년 출생해 66년 응용미술과에 입학한 황현숙 동문이다. 그가 출품한 세 점 중 마지막 작품, 그러니까 이 긴 여정의 종착지이기도 한 작품은 Pinching&coiling기법으로 만든 작품 <옹달샘>(28x25x16cm, 2016)이다. 우연일까. 전시의 첫 작품과 마지막 작품의 주제가 이 전시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하는 듯하다. 아마도 이 여정은 <흐르지 않는 강>에서 시작해 먼 길을 걸어 <옹달샘>에 이르는 그것이라는 듯 말이다. 흐르지 않는 강, 앞뒤가 꼭 막혀 고인 웅덩이, 명치를 누르는 듯한 둔중한 체중, 어떻게든 그것을 뚫어낼 때에야 강은 비로소 다시 흐를 것

이다. 그것이 강경구의 <흐르지 않는 강>의 시대 인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 서사의 결말은 부드럽고 온화한 빛이 감도는, 황현숙의 소담한 그릇 <옹달샘>이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채 이웃한 세 개의 크고 작은 샘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정한 샘물을 담기에 적절해 보인다.

전 인류가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과 마주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이기에, 역사와 기억을 다루는 이 전시의 의미는 더욱 새롭다. 디지털 네트워크 체계와 언택트(untact)화 된 일상이 턱밑에 와 있고, 문화와 예술조차 나날이 성능이 진화하는 인공지능으로 매개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생태계 위기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과 예술창작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도전을 품어야 하는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존재론에는 이 절박한 시대의 요청에 가장 먼저 답하는, 이 민족 공동체의 부름이 내포되어 있다. 최초의 주춧돌이 놓여졌던 1946년부터 자명했던 그 부름은 흐르지 않는 강 같은 동시대의 예술을 다시 흐르게 하고, 시대의 어두움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옹달샘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이 전시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역사와 기억이 새겨져 있다. 공화국과 고락을 함께 해온지 여언 74년 세월이니, 왜 부침이 없었겠으며 공과(功過)인들 없었겠는가. 하지만, 이 위기의 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떨쳐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독려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다.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영감과 재능의 요소를 흐릿하게 하는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성의 터전으로, 지각과 상상력의 비옥한 경작지로, 그래서 세계미술을 이끄는 예술의 미래 인재들의 산실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 유구한 역사로부터 들려오는 호소가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이 전시는 동문 모두가 고마워해야 할 수고의 대가로 어렵게 성사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또한 마땅할 것이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동문 선, 후학 분들에게 알량한 마음이나마 전하고자 한다.

모교소식

전기졸업전 및 석사·박사 학위청구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학장 문주)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27일까지 교내에서 '전기졸업전 석사·박사 학위청구전 2020'을 개최했다. 릴레이 방식으로 열린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닝 없이 진행됐으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람인원을 제한했다. 전기졸업전은 모교 49, 50, 51, 74동에서 서양화과(12.3~6), 디자인전공(12.7~13), 동양화과(12.10~13), 조소과/공예전공/영상매체 연합(12.22~27) 순으로, 석사·박사 학위청구전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동양화과/서양화과/디자인전공(12.3~13), 조소과/공예전공(12.17~27) 순으로 열렸다.

국제디자인컨퍼런스 개최

디자인과는 지난해 11월 13~14일 18번째 국제디자인컨퍼런스 IDCC(International Design Culture Conference)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과연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뜻을 담은 Good work'를 주제로 열린 이번 IDCC에는 비즈니스와 교육의 현장에서 디자이너, 기업가, 시민, 작가, 연구자로서 그 질문에 대한 창조적이고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연사들을 초청했다.



2021학년도 신입생모집 실시

모교는 지난해 10월 19~20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1학년도 신입학생 수시모집 통합실기평가를 실시했다. 통합실기평가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의심환자 선별 문진표 수집과 고사장 입실 전 개별포장된 KF-94/N95 마스크 신품 착용 의무화, 순차적 입실 등으로 방역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대입 실기를 치른 적 있지만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대관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렸고 지자체의 방역 점검도 마쳤다. 이어 모교는 지난해 12월 14~18일 신입생 수시모집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시행했다. 또한 올해 1월 14일에는 정시모집 일반전형 통합실기평가가, 1월 19~20일에는 일반전형면접이 진행됐다.

서울대소식

서울 관악구(서울대학교)에 '한국판 실리콘 벨리' 조성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가 관악구, KT와 손잡고 한국판 실리콘벨리를 조성한다. 지난해 12월16일 서울대와 관악구, KT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악S밸리' 조성사업은 관악구에 서울대의 우수 인재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를 만들고, 스타트업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자생적 창업생태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KT는 이러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는 첫 번째 기업 참가자다. 오세정(사진 오른쪽) 총장은 "최근 우리 대학은 우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물론 이를 사업화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악S밸리 내 서울대, 관악구, KT의 참여는 지역-대학-산업이 연계된 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KT는 서울대, 관악구와 함께 ▲혁신기반 벤처 발굴 및 유치 ▲벤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서울대 학생과 교수 등 우수 인적자원 투입 ▲멘토링, IR 등 역량강화 교육 제공 ▲우수 벤처 투자 연계 등의 협력을 진행한다. 또한 KT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KT 창업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관악구와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대학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참여하며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창업벨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년간 100억원의 서울시 지원 외에도 서울대와 관악구가 각각 105억원, 55억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총 20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 조성도 마쳤다.

등록금 동결

서울대는 지난 1월7일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향후 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울대는 등록금을 2009년부터 동결 또는 인하했으며, 2018년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다.

서울대총동창회소식

온라인 홈커밍데이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이희범)는 지난해 11월2일 제41회 홈커밍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70년대 홈커밍데이가 시작한 이래 오프라인 모임을 중지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이후 두 번째이다. 행사는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에서 오전11시부터 약 40분간 사전 제작한 영상을 방송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찍은 영상편지로 의미를 더하고, 협찬금과 협찬품을 보내와 예년과 다름없이 행운권 추첨을 통해 꾸민 경품도 선물했다. 이승훈(70건축) 상임부회장이 500만원, 이준용(56경제) 고문이 350만원을 기부하는 등 동문 2200여명이 지원한 협찬금과 협찬품 액수는 총 2억9천여 만원이며, 오세정(71물리) 서울대 총장도 그릇세트 120개를 지원했다. 이희범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록 유례가 없었지만 오늘 행사는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 덕분에 성사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1년 신년인사회 겸 조찬포럼

- 일시: 2021년 2월18일(목) 오전7시30분
- 장소: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서울시청 앞)
- 행사내용: 조찬 및 신년 덕담, 유공동문 표창, 특강 등
- 강연자 및 주제: 정부 관계자, '2021년 국정 방향' 특강(변경될 수 있음)
- 참석인원: 220명(선착순)



중앙도서관 VR Tour

서울대 중앙도서관 VR Tour 서비스가 지난해 12월1일 시작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만 있다면 어디서든 중앙도서관의 모든 시설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온라인서비스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VR Tour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VR Tour는 관정관 6층에 위치한 VR체험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기획된 VR Tour는 라운지, 서고, 열람실 등 도서관의 다양한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교수 전용시설인 패컬티라운지와 고문헌자료실 등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시설도 VR Tour를 통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가상공간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고서의 윤곽과 손때를 감상할 수 있어 마치 도서관을 직접 탐험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VR Tour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구조와 대출, 반납 서비스, 태블릿PC 대여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등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웹어워드 교육부문 통합대상



서울대 대표홈페이지가 지난해 11월30일 국내 최고 권위의 웹평가상인 '웹어워드코리아 2020' 교육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3월 전면 개편한 대표홈페이지는 서울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메인 영상과 편의성을 높인 일관된 레이아웃,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트렌드를 제시한 좌측 내비게이션 바 등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어워드코리아는 인터넷전문가 4천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국내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교육부문은 대학, 사이버대학, 학생·유아교육, 전문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통합대상은 이 중 최고상이다.

제23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후보자 추천안내

■ 후보추천대상

- 서울대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유·무형적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분/단체
- 인류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서울대와 총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분/단체
- 해외에 거주하며 서울대와 총동창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단체

■ 후보추천

- 추천방법: 추천서식에 맞춰 후보의 공적 등 작성해 총동창회 사무처 제출
- 추천기한: 2021년 1월31일(일)까지

■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2021년 2월중 관악대상운영위원회 심사 및 선정, 3월 정기총회에서 시상

관악경제인회(가칭) 회원모집

- 대상: 국내외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중·소기업인, 벤처창업인, 기업체임원으로 근무하는 동문, 경제분야 학계·언론계 동문
- 목적: 친목도모, 정보공유의장 마련, 스타트업 선후배 네트워크 연결
- ※ 자세한 행사 안내 및 신청방법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 문의: 02-702-2233

회비납부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감사 ·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 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찬조금(2020.11.1-12.31)

- 광고후원(라이프해커스) 50,000원
- 최아영(67응미)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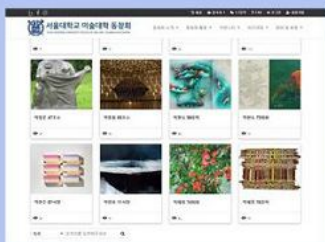
회비납부자(2020.11.1-12.31)-가나다순

■ 평생회비

- 박소영(73회화) ●서명희(71조소) ●이정연(12동양)
- 장주연(12동양) ●최현주(12동양) ●황현수(74조소)

■ 연 회 비

- 부회장** ●김성천(82응미) ●김종선(74회화) ●김춘수(77회화)
●김혜원(71응미) ●이선원(75회화)
- 이 사** ●여정화(77응미) ●장준혁(90조소) ●최영인(85공예)
●하귀분(82회화)
- 회 원** ●강명순(59미학) ●김성연(69응미) ●김원세(58회화)
●김희자(66회화) ●노숙자(62회화) ●박근자(51회화)
●박미화(75응미) ●박충흠(65조소) ●서도식(74응미)
●안수경(85공예) ●안종문(60응미) ●염은경(74조소)
●이광수(88동양) ●이권민(08동양) ●전미정(82조소)
●정규리(90동양) ●정현도(71조소)



회비를 납부하시면 매일 100여명의 온라인 관람객이 방문하는 본회 홈페이지 '아카이브' 코너에 회원님의 작품이미지와 약력을 게시해드립니다. 회비납부 후 본회 메일로 이미지3점/캡션/학력/경력/전시이력/수상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올려드립니다. 기존에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드립니다.

동문작품집 '서울대미술인' 정정사항입니다

박소영(73회화) : 숙명여대 한국화전공 석사과정 ▶ 석사
강신자(76조소) : 원현대 미술사학과 박사 ▶ 박사과정 수학
윤영화(84서양) : 작품이미지 위아래 바뀜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일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매달 25일 이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전화 02-872-8065 메일 snuarta@naver.com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제작쪽)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 · 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 · 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 02-872-8065

입금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동창회 SNS 가입안내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동문들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D예: 홍길동(99동양)

디자인 굿즈 커머스 플랫폼 "셀브즈"

셀브즈는 다양한 굿즈를 직접 만들어서 주문제작을 하거나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손쉬운 기능들을 통해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개인 작업물을 업로드 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기존에 굿즈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했던 초기 비용이나 최소생산수량, 재고부담, 배송, CS(고객응대)까지 셀브즈가 모두 대행해주기 때문에 걱정없으며, 판매 수익금과 굿즈의 가격도 아티스트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디자인으로, 나만의 굿즈샵을 오픈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해보세요. 누구나 셀브즈의 아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selves.kr> 문의 카카오톡 채널 "셀브즈" (주)크루티브 대표자: 조기봉(공업디자인 10), 문성욱
M: 010-9765-2133 Email: ceo@crewitive.io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9 (성수동2가) 평화빌딩 7층 703호 (주)크루티브



고창군에 작품기증

홍순무(54회화)



고창출신 서양화가 홍순무(전주교대 명예교수) 동문이 최근작 농약, 사물놀이와 중년시절의 자화상, 풍경화와 인물화 등 작품 31점을 고창군에 기증했다. 지난해 12월16일 홍동문과 가족, 유기상 고창군수 등이 참석한 작품기증식에서 그는 “작품기증을 통해 태어난 고향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고향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했고, 유군수는 “60여년 화업 역사의 예술혼이 담긴 홍화백 작품들은 지역민들에게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상기시키고, 고창만의 아름다운 향토성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령에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홍동문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교에 진학해 현대적 의미의 정규교육을 받은 광복 1세대 화가로, 서구 현대미술 조류의 범람과 어려운 시대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독심있게 지켜왔다.

‘나’를 돌아보다

김호득(69회화)



김호득(영남대 명예교수) 동문이 오는 2월말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조선일보 창간100주년 한글특별전(‘나의 순간’)에 출품한 작품 ‘돌아선 나’는 글자이며 추상화다. 2007년 제작한 이 작품은 ‘한글 수묵’ 연작의 시작점이다. 가장 핵심적인 획 몇 개로 수묵화를 그리는 김동문은 “글자를 왼손으로 거꾸로 써놓으니 그림 같더라”고 말했다. 그는 ‘나의 발견은 대체로 휴지기에 온다고 말한다. 2005년 교수 안식년에 무작정 뉴욕으로 떠나 1년 내내 전시만 둘러봤는데 ‘별의별 시도를 다 하더라. 나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해야 한다고 절절히 느꼈다’며, 이후 왼손잡이 콤플렉스가 없어졌고 애로사항이라 여겼던 걸 만천하에 드러내자는 마음으로 글자 연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3학년까지 서양화를 그렸는데, 돈이 없어 동료들이 버린 캔버스에서 뜯어낸 광목에 그리곤 했다. 그러다 동양화로 바꾼 뒤 간경화, 폐렴, 식도암에 걸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해왔다.

대한민국인공지능포럼 참여

이순종(70응미)



이순종(모교 명예교수) 동문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22일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된 출범기념식에는 인공지능포럼 공동회장인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과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고문단인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 이희범 전 산자부장관 등 전국에서 포럼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자문위원으로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등 10명의 대학총장, 김진형 초대 인공지능연구원장,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장 등 20명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 석학들이 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은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과학기술, 정치경제, 인문사회, 국방, 환경, ICT, 의료, 미디어, 문화예술, 교육, 직업윤리 등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게 활용되도록 인공지능 진흥과 윤리 정책, 법제 연구를 수행한다. 인공지능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미래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예측하고 소개하는 인공지능 생활실용서인 ‘인공지능과 미래-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세상’을 집필해 올해 초 출간할 계획이다.

지갑없는 시대

조수용(93디자인)



지난해 11월18일 조수용 동문과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 개발자 행사인 ‘이프(If) 카카오 2020’에 앞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톡에 적용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상품 정기배송을 신청하는 ‘상품구독’ 서비스는 곧바로 적용됐으며, 기업의 홍보와 고객관리가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도 개편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구독하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을 선보인다. 가장 큰 기대를 모은 것은 신분증·자격증·증명서 등을 카카오톡에 보관하는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로 올해 1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면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지갑과 카카오페이가 결합하면 지갑이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카카오톡이 실물 지갑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동문은 강조했다.

미디어파사드의 혁신적 선두주자

하준수(93디자인)



하준수(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동문이 국방부와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고마워요 우리군’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를 상영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외벽에 LED 조명으로 아름다운 영상을 연출하는 등 시각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도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동문은 모교에서 공업/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미국 칼아트에서 Film & Video를 전공했다. 지난해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5.18기념재단 사진아카이브의 4천여점을 사용한 인공지능(AI) 미디어파사드 ‘영원으로, To Eternity’를 전시해 5월 광주항쟁의 현장을 소환했다. 국민대 융합미디어디자인연구소장, 디자인대학원장인 하동문은 부산국제영화제 윤파편드와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후지어워드를 수상했다.

옛것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다

공상구(97동양)



공상구(마이아트옥션 대표) 동문은 우리 문화재, 고미술품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재조명한다. 고미술을 다루던 부친(공창호/공화랑 대표) 덕에 어릴 때부터 고서화를 접하면서 막연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그는 모교 동양화과와 고려대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이 일에 뛰어들었다. 현재는 2010년에 설립한 마이아트옥션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고미술품과 동양화가 상당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환수문화재 경매, 전시, 명사초청강연 등을 추진하며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낙찰된 주요 작품으로는 성종대왕비 공혜왕후의 어보인 ‘휘의신숙공혜왕후지안’,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에서 사용된 ‘병인가례시백자청화명수복문호’ 등이 있다. 해외 환수 문화재 옥션으로 유명세를 얻기도 했던 그는 고미술이 현대미술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큰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을 들었다. 공동문은 마이아트옥션이 판로가 되어 인사동을 다시 살리고 고미술업계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올해부터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클래스를 열어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의 원점 찾은 재미작가

최일단(56조소)



뉴욕에서 활동중인 최일단 동문이 지난해 12월 고향 경주를 찾았다. “나의 한국행은 곧 경주행이다. 내 삶은 언제나 경주에서 출발하고 경주로 되돌아온 한 다. 그래서 나의 원점은 경주”라는 최동문은 구한말 문과급제인 최현필 선생의 후손으로, “문기를 이어받은 것과 경주라는 유산이 있어 언제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1936년 경주에서 태어난 최동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주해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모교 회화과에 입학했으나 조소과로 전과했다. 졸업후 10여년의 교편생활을 거쳐 1968년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미국으로 가려던 중 찾았던 파리의 이응노 화백에게 1972~75년 3년간 수학하며 동양화에 입문해 1986~88년 중국으로 유학, 북경중앙미술학원에서 산수화를 전공했다. 오랜 세월 예술을 위해서라면 세상 어느 곳이든 찾아갔던 지난 시간들이 서예, 조각, 회화, 공예 등에서 망라되는 최동문의 작품세계를 한 평론가는 ‘발바닥 예술가의 전천후 미술이라 평한 바 있다.

금속으로 그리다

김승희(65음미)



한국 현대공예 1세대인 김승희(국민대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해 11월 두가현갤러리 초대전에서 ‘금속으로 그리다’라는 호평을 받은 신작들을 선보였다. 그동안 금속산화기법으로 착색해오던 것을 금속판 표면에 옷칠 채색을 시도한 것은 ‘전통기법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 전통공예영역을 확장하고 싶다’는 바람과 의지였다. 동시에 작품에서 노랑저고리와 빨간치마를 표현한 두 그릇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조화’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며 그래서 전시회명이 ‘너와 나의 풍경’이다. 모교 졸업후 미국 크랜브룩미대에서 수학하고 인디애나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동문은 29세에 국민대 교수로 임용됐다. 목양공예상, 한국공예가협회상, 석주미술상, 미국 알마아이크만상,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현재 장신구브랜드 소연 대표이다.

나폴리에 미술한류

이정연(71회화)



이정연(전 SADI 교수) 동문이 지난해(10.8~11.15) 아시아작가 최초로 나폴리시립미술관(Palazzo delle Arti Napoli)에서 가진 초대개인전 ‘RINASCITA’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끌며 미술한류에 큰 획을 그은 축제와 같은 행사였다. 자개, 옷, 대나무 등 한국적인 재료를 사용한 독창적인 작품 72점을 선보인 이번 전시는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전시로서 현지 미술애호가 및 언론 등의 찬사를 받았다. 이동문은 좋아하는 여행조차 가지 못하는 위축감을 해소한 아르티나폴리의 호평에는 칠화자개 작품들의 성과도 한몫을 했다고 소개한다. 모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뉴욕 프랫인스티튜트 대학원, 콜롬비아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동문은, 동, 서양화를 섭렵하고 독창적인 수간채색과 판화, 장지 추상화에서 삼베옷칠 건칠 기법과 칠화, 자개화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인 실험정신으로 해외에 진출한 글로벌 아티스트이다. 한국화가 최초로 도쿄 우에노모리미술관 전관전시, 안도라-팔라조타글리아페로뮤지엄과 뉴욕 킵스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미디어아트그룹 에브리웨어

허윤실(02디자인)



미디어아트그룹 에브리웨어 허윤실 동문이 오는 10월3일까지 1년간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어린이갤러리에서 ‘MAZAR’전을 열고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더 흥미로운 ‘미술관 경험’을 마음에 남기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에브리웨어는 허동문과 남편 방현우 부부가 2007년에 결성한 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일본 국립도쿄미술관, 영국 빅토리아&알버트뮤지엄 등 전 세계에서 초청을 받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에브리웨어의 작업들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강의 등을 통해 지식을 나누고 있다. 서울대 디자인학부와 국어국문학과를 복수전공한 허동문은 LG전자 R&D센터에서 일하다 미국 UCLA에서 디자인·미디어아트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계항공공학을 전공한 남편은 유체역학을 활용한 에이지 진단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서울대 교수가 됐으나 2014년도에 사임하고 에브리웨어의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웹툰작가의 진로특강

변지민(09디자인)



인기 웹툰작가 변지민(무적핑크) 동문이 지난해 12월17일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진로특강을 펼쳤다. 강연은 웹툰의 기획, 제작 등과 관련한 노하우를 비롯해 웹툰작가가 되는 과정 등을 소개하는 순서로 펼쳐졌다. 양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양주시도서관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간 생중계 했다. 2009년 학생이었던 변동문은 네이버 웹툰 최연소 작가로 데뷔, 2009~14년 ‘실질객관동화’, ‘실질객관영화’, ‘경운기를 탄 왕자님’을 연재했다. 2014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조선왕조실록’이 큰 주목을 받아 네이버웹툰에 연재되며 특 형식과 역사 장르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고, 2017년 업계 최초로 소속사 와이랩과 독립 레이블 핑크잼을 설립했다.

뉴욕퀸즈크로싱물 공공미술작품설치

권재나(05서양)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설치미술가 권재나 동문이 지난해 연말 뉴욕 퀸즈 크로싱물의 공공미술 작가로 선정됐다. 크로싱아트갤러리와 13년째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지역에서 야외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F&T그룹은 할러데이시즌을 맞아 플러싱 크로싱물에 권동문의 작품을 선보였다. 오는 1월31일까지 전시되는 ‘Hearts as One’라는 제목의 작품은 오래 거주하며 느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품으로 하트라는 글로벌한 모티브를 이용,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며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다. 권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일대학에서 회화와 판화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욕에 정착해 뉴욕의 스프링브레이크아트쇼, 알재단의 영아티스트포럼, 디아더아트페어 등에 참여했으며 2014 보스턴 영컨템포러리프라이즈와 캐롤 솔로스버그 메모리얼 프라이즈 등을 수상했다. 올 여름에는 맨하탄 첼시의 더퍼닝센터에서 열리는 그룹전 ‘파이트 오버 플라이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광고문의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약 3천명에게 메일과 SNS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면광고를 원하시는 동문님은 본회 메일(snuarta@naver.com) 또는 문자(010-9469-80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기독교예술 대상수상

김병중(74회화)



모교 명예교수 김병중(가천대학교 석좌교수) 동문이 제4회 대한민국기독교예술 미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기독교예술 대상은 평생 하나의 예술 분야에서 작품을 통해 기독교 문화의 가치를 알린 예술인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28일 여전도회관에서 코로나19로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거행했다. 모교 학장과 서울대미술관장을 지낸 김동문은 '바보 예수'와 '생명의 노래' 연작으로 잘 알려진 화가지만, 문인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 '중국어화 연구', '회합기행' 등 30여권의 저서를 펴냈다. 대학생 때 전국대학생 미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중앙, 동아일보 신춘문예와 대한민국 문학상을 휩쓸었다. 또한 피악, 바젤, 시카고 등 국제아트페어와 비엔날레에 참가했으며 미술기자상, 선미술상, 한국미술작가상, 기독교문화대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한민국문화훈장, 녹조근정훈장,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등을 수상했다.

김세중조각상 본상선정

배형경(74조소)



배형경 동문이 지난해 12월 김세중기념사업회(이사장 김남조)가 주최하는 제34회 김세중조각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고된 노동을 요하는 전통 소조방식을 고수하는 얼마 남지 않은 조각가"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모교 졸업후 미술교사로 잠시 교편을 잡기도 했던 배동문은 김종영미술관의 '오늘의 작가'로 선정됐고 김세중미술관, 북경 페킨파인아트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경기도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과 프랑스 카르카손느시청,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조각분야 최고 권위의 김세중조각상은 한국현대조각 제1세대인 김세중(1928-86/46조소) 동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서 올해까지 조각상 74명, 미술저작상 22명을 배출했다. 김세중 동문은 모교 학장,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했으며 광화문 이순신장군상이 널리 알려져 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열릴 예정이다.

올해의작가상 수상

허진(81회화)



전남대학교 교수 허진 동문이 광화문아트포럼 선정 '2020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수상기념전시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가졌다. '올해의 작가상'은 광화문아트포럼이 국내 활동 작가 중 창작 활동 분야에서 미술문화 저변의 탁월한 업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영향을 준 작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초대전을 개최하는 행사이다. 허동문은 추사 김정희의 수제자이자 호남 남종화의 시조인 소치 허련의 고조손이며 근대 남화의 대가인 남승 허건의 장손이다. 전남 진도에 자리잡은 소치선생의 윤림산방 화맥 5대째를 이어가며 한국화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는 허동문은 2015년 한국화가로서는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수여하는 '오늘의 젊은예술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과 융복합예술상을 받았다.

미국건축가어워즈 수상

박진희(91디자인)



건축가이자 콜럼비아대 교수인 박진희 동문이 미국 건축가어워즈(The American Architecture Awards 2020)의 개인주택(Private homes) 부문에서 수상했다. 수상 작품은 네 가구가 한 집안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한 지붕 네 가구'를 위해 지어졌다. 새롭고 오래된 것이 공존하고, 아늑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마을에 자리한 것도 특징적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아름다운 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건축물의 3개면은 남향으로 햇빛과 전망이 균형을 이루도록 맞춤 설계했으며, 4가구를 위한 전략적인 4개 단위로 나눠 내부 계단과 외부 계단이 겹치며 각 가구에도 여러 계단이 있어 건물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이다. 박동문은 하버드 건축 대학원 석사 졸업후 에스에스디 대표, 콜럼비아 대학교 겸임교수, 뉴욕시립대학 초빙석좌교수, 시카고 공과대학 모겐스텐첸어 교수, 서울시 공공건축가, 뉴욕건축가협회상 심사의원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의작가상 선정

김민애(00조소)



조각과 설치를 통해 일상과 예술의 틀을 비트는 작품들을 발표해 온 김민애 동문이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0' 4인에 선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동시대 미학적,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역량 있는 시각예술가를 대상으로 해마다 4명의 후원작가를 선정하여 신작 제작지원과 전시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올해의 작가상에는 김동문 등 4인이 뽑혔다. 최종 작가를 가리는 공개 경쟁전이 2020.12.4~2021.4.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며, 김동문은 미술관의 전시공간을 소재로 삼아 작품과 전시의 관습적인 조건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작을 선보인다. 공간과 구조물, 작품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은 조각이 주어진 환경이나 맥락과 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작가의 오랜 질문에서 발원하여, 조각이, 미술이 무엇인가라는 성찰로 연결된다. '올해의 작가상 2020' 최종 수상자는 전시 기간 중 2차 심사를 거쳐 2021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의젊은공예인 수상

김덕호(03디자인)



도예가 김덕호 동문이 '예율이 뽑은 올해의 젊은 공예인'에 선정돼 수상기념전 '2020 예율프로젝트전시'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1월29일까지 서울 종로구 '예율 북촌가'에서 열린다. '예율 프로젝트'는 재단법인 예율의 전통공예 후원사업의 핵심으로, 올해는 프랑스 명품 보석브랜드 반클리프아펠이 후원사로 참여했다. 김동문은 조선백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양구에 터를 잡고 조선백자의 미감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도자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연리'기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흐르다Flow', '흔적 Vestige' 시리즈를 완성했다.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무늬들은 백자의 간결한 형태와 조화를 이루며 작가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박물관 및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양구백자박물관, 영국 Victoria&Albert 뮤지엄에 작품이 소장됐다.

한울회 신입회원 모집안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으로 현재 회화, 조각, 공예, 영상 및 설치 등 작품활동을 하는 여성동문 중 한울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울회사무국 010-3890-0556 / adela216@hanmail.net



수목추상선구자 서세옥(46회화)

한국화가 산정 서세옥(모교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해 11월29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한국화의 현대화 작업을 주도한 고인은 서예기법을 회화에 접목한 작업으로 평생 화단 변혁의 선두에 서 왔다.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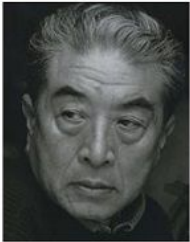
동문은 1959년 목림회를 발족해 현대적 한국화의 바람을 이끌었으며 파격적인 수목추상으로 독창적 화풍을 개척했다. 한국미술의 국제화 흐름에 앞장서 상파울루비엔날레, 카누국제회화제 등에서 활약했다. 국민훈장 석류장,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작가상, 이동훈미술상, 대한민국예술원상,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인상 특별상,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2008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됐고, 2009년 개관한 성북구립미술관 명예관장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 100점을 기증했다.



물방울작가 김창열(48회화)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창열 동문이 지난 1월5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1929년 평남 맹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모교에서 수학한 뒤 한때 앵포르멜 미술 운동을 이끌었다. 파리·상파울루 비엔날레 등에 참

여했으며, 미국 유학을 거쳐 1969년 파리에 정착해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물방울 회화'는 그의 작품을 상징·대표한다. '물방울 작가'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와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1972년 파리 '상롱 드 메'에 입선하면서 물방울 회화가 본격 시작됐다. 김동문이 수도자처럼 평생 매달린 물방울은 순수한 생명력 등 다양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작품 바탕이나 배경은 바뀌었지만 물방울은 이어졌다.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오피시에,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으며 제주도에 '김창열미술관'이 있다.



한국추상조각개척자 최만린(54조소)

한국 추상조각의 개척자 최만린(모교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해 11월17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세대 조각가로 모교 교수·학장,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했다. 1958년 한

국전쟁의 상흔을 표현한 이브 연작을 통해 명성을 얻었으며, 1960년대부터 서예필법과 동양철학이 모티프가 된 천·지·현 시리즈와 일월 시리즈, 보편적 의미와 근원의 형태를 탐구하는 태·맥·0 시리즈 등 최근까지 작품 활동을 해왔다. 최동문은 삼성,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대규모 회고전을 비롯해 파리,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에 초대됐으며, 대한민국미술인대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최동문은 작품 126점을 성북구에 기증, 성북구는 2019년 최동문의 자택을 최만린미술관으로 조성했다.



물의 화가 안영일(54회화)

'물의 화가' 안영일 동문이 지난해 12월12일 미국 LA에서 향년 86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34년 개성에서 서양화가(안승각)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 1957년 대학시절 주한미

국대사관에서 실시한 공모전에 뽑혀 뉴욕 월드하우스갤러리 초대전에 참여했다. 졸업후 서울예고, 사대부고에서 교편을 잡다가 전업작가로 활동, 시카고 헬하우스갤러리, 헬싱키 USIS갤러리 등 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66년 뉴욕으로 이주한 안동문은 이후 LA로 옮겨 정착했고 1980년대 '물' 연작을 발표하며 '물의 화가'로 불렸다. 201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안동문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붓을 놓지 않고 2017년 LA카운티 미술관과 현대화랑, 2018년 시카고 카비규타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순창출신 거장 박남재(50조소)

한국 대표 구상화가 박남재 동문이 지난해 12월11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1929년 순창에서 태어난 고인은 농구를 위해 서울 한성중학교로 전학했지만 건강문제로 농구를 포기, 미술을 선택해 모교에 진

학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중퇴했다. 1950년 7월13일 걸어서 고향으로 간 뒤 남부군에 들어가 1년 동안 회문산, 지리산 등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광주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다. 석방된 후 군산고에서 농구교치를 하다 포로수용소에서 만난 오지호 화백의 권유로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박동문은 이후 미술교사를 거쳐 원광대 교수를 지냈으며 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다. 2016년 귀향해 지역화단을 이끌던 박동문의 분향소는 섬진강미술관에 마련, 오는 1월29일까지 유작과 생전 작업환경이 전시된다.



남가주한인미술가 대표주자 박영국(66회화)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장을 지낸 남가주 한인화단 1세대 박영국 동문이 지난해 11월30일 미국 LA에서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중·고교와 모교 대학원 졸업 후 덕성여대

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 1976년 미국 LA로 건너가 오티스아트앤디자인대를 졸업한 뒤 생계를 위해 페인팅, 인쇄업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순수한 스타일의 그에게 사업은 쉽지 않았다. 1990년 귀국해 모교와 중앙대 등에서 강의하며 미국의 발전된 예술에 대한 강연회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에 정착하려 했으나 결국 LA로 돌아갔다. 이후 남가주한인미술협회가 되어 후배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후원도 했다. 또한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에서 미술교실을 맡아 활발한 재능기부활동을 해왔다.



풍경화로 인간성찰 공성훈(83서양)

풍경 속에서 인간의 길을 통찰해 온 서양화가 공성훈 동문이 지난 1월11일 향년 56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모교 졸업 후 서울산업대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다시 모교 대학원에서 서양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2001년부터 성균관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공동문은 사실적으로 그린 도시 외곽의 밤 풍경 등과 같은 일상적 장면처럼 보이는 풍경의 외형 너머, 그 삶의 터전에 존재하는 현실과 부조리를 상징하는 작업을 했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으며,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해 2019년 대구미술관에서 수상기념 개인전이 열렸다. 공동문은 OCI미술관, 아라리오뮤지엄, 금호미술관을 비롯해 독일 베를린 악티온갤러리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신간

Lee Ufan

이우환, 무한의 예술

이우환(56회화) 저 / 에이엠아트 발행

한국이 낳은 아티스트 이우환 동문이 걸어온 숨겨진 창작의 행보를 집약한 이 책은 두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이우환의 작품론이다. 독일과 미국의 저명한 미술사학자, 미술평론가가 이우환 예술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논고를 실었다. 프랑스 큐레이터가 풀어낸 전시기획의 소회, 한국 미술저널리스트가 전시현장을 생중계하는 리뷰도 실었다. 제2부는 이동문의 생생한 육성을 듣는 자리. 인터뷰와 작가에세이를 실었다. 자신의 작품론뿐만 아니라 이론가로서 현대미술 전반의 현황과 비전을 피력한다.



일하는 사람의 생각

오영식(84공예) 외1 저 / 세미콜론 발행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이너 오영식 동문과 광고인 박웅현 두 크리에이티브 고수가 나눈 창작에 관한 대담집. 광고와 디자인이라는 현업에서 30년 넘게 활동해온 선배 창작자로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현장을 이야기하며 후배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았다. 오동문은 현대카드 디자인의 체계와 공간을 만들고 SK텔레콤, JTBC, 롯데카드 '로카' 등 국내 유수 기업의 브랜드에게 디자인 생명을 심어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문가로서 눈부신 결과물들을 만들어왔다.



뮤지엄 오브 로스트 아트

이연식(90서양) 번역 / 노아차니 저 / 재승출판 발행

사라지거나 때로 다시 발견된 미술품이 겪은 사연과 불운을 살펴보는 책. 비잔틴제국의 눈부신 모자이크는 400년이 지난 1934년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피카소, 말레비치의 사라진 작품은 최신기술을 통해 다른 작품 밑에서 발견됐다. 작가는 미술 범죄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술품의 존재 방식을 다채롭게 살피는 작업을 해왔으며 이 책은 그러한 입체적인 관심사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드가

이연식(90서양) 저 / arte 발행

동서양의 여러 예술가와 작품을 소개해온 이연식 동문이 클래식 클라우드의 스물네번째 책 '드가'를 통해 드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도 함께 살펴으로써 드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양화와 미술이론을 공부한 이동문은 미술사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특유의 비틀기와 유머가 돋보이는 저술, 번역,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지리산 가는 길

임채욱(95동양) 저 / 아트제 발행

산을 찍는 작가로 잘 알려진 임채욱 동문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찍은 지리산 사진을 '지리산 중주길',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 실상길', '지리산 예술길'로 나누어 책에 실었다. 어머니의 산이라고 불리는 지리산이 동시대의 예술을 품어줄 수 있을 거라는 바램으로 산이 품어주는 세상을 보여주고자 지리산의 네 가지 길을 소개한다. 임동문은 책 속에 담긴 작품 중 17점을 한지에 프린트 해 지리산 실상사와 악양작은미술관에서 전시했다.



친정엄마 요리백과

옥한나(08조소) 외1 저 / 중앙books 발행

인스타그램에 옥한나(라임맘) 동문과 파워블로거 엄마(요리천사)가 함께 써내려간 214개의 친정 찬 레시피를 담은 책이다. 레시피보다 중요한 엄마만의 요리 비법과 실패로부터 터득한 딸의 요리까지 담았다. 옥동문은 엄마의 레시피를 어린아이들이 먹기에도 무방한 메뉴로 변형해서 요긴한 콘텐츠로 꾸렸다. 레시피 하나로 두세가지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버전업 레시피를 통해 한식을 기반으로 한 우리 밥상의 거의 모든 메뉴를 해결할 수 있다.



김충원 스케치수업

김충원(79응미) 저 / 진선아트북 발행

드로잉 아티스트로서 수많은 미술교재를 집필한 김동문이 30년간의 노하우를 집약한 연필과 펜을 사용해 스케치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케치 안내서. 스케치를 위한 올바른 자세와 재료부터 다양한 스트로크 연습, 꼭 필요한 스케치기법 등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스케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간단한 선과 도형으로 시작하는 그림부터 완성도 있는 세밀한 그림까지, 다양한 수준의 보기그림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

김충원(79응미) 저 / 진선아트북 발행

이 책은 가장 편안하고 친근한 드로잉 대상인 나무를, 가장 단순한 재료인 펜과 연필로 그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 느끼고 표현하며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초적인 나무그리기와 펜과 연필 드로잉기법을 알려 주고, 밑그림 위에 따라 그리는 연습페이지를 실어 누구나 어려움 없이 나무 드로잉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짧은 에세이와 함께 실린 50여종의 나무 드로잉은 흑백사진처럼 담백한 선 드로잉의 매력과 감성을 느끼게 한다.



세계사톡 1~5세트

변지민(무적핑크/09디자인) 저 / 위즈덤하우스 발행

메신저 대화인 '톡' 형식을 도입해 큰 인기를 끌었던 역사만화 '조선왕조실록'을 이은 '세계사톡' 시리즈 단행본시리즈 완결편인 '현대이야기'가 출간되면서 총5권으로 마무리됐다. 방대한 세계사도 인물과 인물의 '톡'을 통해 접하면 쉽게 다가온다. 무적핑크 변동문의 위트와 세계사 교사의 내공이 결합돼 강력한 재미와 학습효과를 준다. 만화로 세계사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만화에서 다루지 못한 방대한 세계사를 해설코너 '세계사 돋보기'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학생부터 어른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삼국지톡 2

변지민(무적핑크/09디자인) 외1 저 / 문학동네 발행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단 하나의 삼국지. 삼국지톡 2권은 계속되는 난국에 거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황건적의 난' 두번째 이야기를 담았다. 1권에서 메인 캐릭터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있을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렸다면, 2권에서는 국가 규모의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곳곳에서 모여든 인물들의 본격적인 갈등과 싸움을 그리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이어질 또다른 전쟁을 암시하고 계속되는 난국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며 핏빛의 전조가 감도는 뜨거운 이야기가 펼쳐져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시



제44회 한울회전

▶유튜브검색어 : 한울회 온라인전

여성동문작가 모임인 한울회(회장 정옥란)의 제44회 정기전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85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전시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유튜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제17회 6·3회조와 온라인동문전

내 인생의 지금

▶유튜브검색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조과 63학번 동문전

- 63학번 회화과, 조소과 동문전

▶참여작가: 김소선 김철호 김효숙 박윤희 배수자
변희준 안재기 정심미 조용숙 최정용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2020.11-12)	전시장소
국보은(79응미)	Hide and Seek II	12. 08 ~ 12. 13	사이아트 스페이스
권재나(05서양)	'Hearts as One'	12.04 ~ 21.01.31	Queens Crossing Mall
권현빈(10조소)	Ongoing Track / 미래와 모양	11. 24 ~ 12. 12	모노하 성수
김남표(91서양)	Gumgil : Tale of JEJU by Nampyo, Kim	11. 19 ~ 12. 18	호리아트스페이스
김대영(79회화)	존재의 가벼움을 넘어서	11. 27 ~ 12. 06	갤러리4F
김덕호(03디자인)	예율이 뿜은 올해의 젊은 공예인 수상기념전 '겹'	12.01 ~ 21.01.15	예울 북촌가
김봉경(02동양)	홍곡(鴻鵠)	12. 23 ~ 12. 29	갤러리도스
김수학(77조소)	찰나-격류	12. 23 ~ 12. 29	갤러리엠
김신혜(97동양)	SPECTRUM	12. 03 ~ 12. 19	오스퀘어갤러리
김예찬(14동양)	병풍 속 로댕미술관	12. 19 ~ 12. 28	프로젝트룸 신포
김호준(92서양)	김호준 초대전	11. 27 ~ 12. 10	갤러리내일
노상균(77회화)	Daydreamer's Tears	12.03 ~ 21.02.27	갤러리시몬
문금희(75응미)	그리스-터키 여행그림전	12.20 ~ 21.01.30	T2카페 갤러리
박관욱(69회화)	박관욱 2006/2020 "Verum Ipsum Factum"	12.11 ~ 21.01.09	웅갤러리
박성진(83서양)	돌담이 있는 풍경	11. 21 ~ 12. 04	아트인 명도암갤러리
박재만(83동양)	별 그리고 달의 추억	12. 16 ~ 12. 22	아리수갤러리
배창숙(74응미)	지나간다	12. 19 ~ 12. 31	심헌갤러리
서용선(75회화)	만첩산중서용선회화	11.25 ~ 21.02.21	여주미술관
송윤주(94동양)	방화수류(訪花隨柳):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노닌다.	11.02 ~ 21.01.31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심현희(76회화)	심현희 개인전	12. 08 ~ 12. 20	세종갤러리
안광휘(10서양)	Show Down	12. 10 ~ 12. 20	디스위켄드룸
안성규(86서양)	BORDER	11. 18 ~ 11. 24	갤러리M
오연진(13시디)	The Very Eye of Night	12.29 ~ 21.02.03	송은 아트큐브
윤이랑(05공예)	Bouncing Boundary	12. 16 ~ 12. 28	갤러리밍
윤종구(76회화)	숲을 넘어 그림이 되다	12. 16 ~ 12. 22	갤러리41
이문주(91서양)	댄스 Dance	12. 02 ~ 12. 12	갤러리41
이상길(83조소)	Contact together	11. 11 ~ 12. 31	바우지움 조각미술관
이승현(01공예)	Patchworked Texture	11. 17 ~ 11. 27	갤러리완물
이종석(92동양)	Phenomenon	11. 19 ~ 11. 28	갤러리진선
이종환(14동양)	평면, 입체 질투	12. 05 ~ 12. 14	프로젝트룸 신포
이혜민(88조소)	Reflections	11. 25 ~ 12. 12	갤러리빙
임재형(08서양)	허물 Tracing on Emptiness	12. 16 ~ 12. 23	온수공간
임채욱(95동양)	지리산 가는 길 & 말러	11. 26 ~ 12. 31	을지로임 Art Space
정재호(90동양)	창과 더미	12. 02 ~ 12. 27	상업화랑
정태후(11서양)	와일드 카드	11. 23 ~ 12. 02	갤러리777
채현교(90서양)	채현교 개인전	11. 23 ~ 12. 27	환경갤러리
최혜경(02서양)	이온 러브	12.17 ~ 21.01.06	프로젝트 스페이스영등포
허승희(03동양)	J에게	11. 25 ~ 12. 04	갤러리한옥
허진(81회화)	2020 올해의 작가상 수상기념전	12. 23 ~ 12. 28	동덕아트갤러리
홍광현(86디자인)	想像	12. 16 ~ 12. 22	갤러리이즈
황혜선(88조소)	함께라면 함께니까	12. 08 ~ 12. 27	갤러리아우